-김성숙 /오/스/트/리/아/편/지

Austria Mission Letter

화복과 은혜의 복음

2026 11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후10:3-5)

1. 아랍어권 청년들의 성장



- 9월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원해 세례 과정을 밟던 Ma 형제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9월 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를 도왔던 친구 부부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 10월부터는 Ma 형제가 아랍어권 사역자와 개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다른 청년들도 그의 간증을 듣고 관심과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2. 거꾸로 가는 아프간 무슬림 여성 그룹



- 아프간 여성과 아동들의 문해 수업이 6년을 넘기면서 노골적인 방해와 이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슬람 공동체 활동과 온라인 종교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 특히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슬람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수업 중에도 이슬람 신앙을 드러내는 행동과 작품을 보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 반면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여성과 아이들도 있어 소망을 갖습니다. 무슬림 도우미들의 역할과 교재 및 수업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지혜와 인도하심이 절실합니다.

3. 여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모임들

- 성도들의 직장 근무와 직업교육, 자격시험 준비 등으로 대부분의 성경공부 모임이 중단되거나 참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남성 성경공부는 한 달 넘게 모이지 못하고 있으며, 금요 라이브 스쿨과 알마시라도 소수 또는 일대일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비록 모임의 규모와 자리는 줄어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선교 동역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깊어가는 오스트리아의 늦가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변함없이 선교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로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반가운 선교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 함께하는 기도(함께 동역해 주세요)

- **여성들의 온전한 회심을 위해** / N, Fa 부인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영접하도록, 기존 교재와 새로운 교재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가 풍성해지도록.
- **잘못된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 이슬람의 영향을 드러내며 다른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D와 Si가 바른길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계속 모임에 연결되도록.
- **Food Connect 사역을 위해** / 올여름 시작한 Food Connect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제와 복음의 대화가 지속되도록.
- **성탄 축하 모임을 위해** / 12월 성탄모임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의 참된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 **M 형제의 건강을 위해** /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눈 시력의 절반을 잃은 M 형제가 강건해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2026년 늦가을, 오스트리아 그랏츠에서

김성숙 선교사